

## LG産電(株), 인도네시아에 重電機器 합작공장 건설

LG産電(株)(代表:李鍾秀)는 인도네시아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총 1,200만 달러를 투자, 자카르타 인근 BEKASI공단에 배전반·모터제어반(MCC)·斷電器제어반(Relay Control Panel)등을 생산하는 중전기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합작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LG산전은 인도네시아 굴지의 기업으로 대통령 3명이 경영하는 Humpuss 그룹의 자회사인 PT. Humpuss Elektronika와 50대 50으로 「PT. Humpuss LG Industrial Systems」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합의하고 현지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으로 LG산전은 국내 중전기 업체로는 처음으로 해외 현지 생산공장을 보유하게 됐으며, 연평균 8%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또 이번 합작공장 건설은 국내 중전기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7년 초부터 LG산전의 기술제공하에 본격 가

동할 합작공장은 대지 1만평, 건평 3천평 규모로 건설되는데 공장 가동 초기에는 년 2,500面 정도의 배전반을 생산하게 되며, 점차 생산제품과 규모를 늘려 2천년에는 년 6,000面의 배전반, 모터제어반, 계전기 제어반 등을 생산하고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관련 중전기기인 진공차단기(VCB), 몰드변압기, 고·저압기기 및 자판기·쇼케이스, 전동공구 등 타제품도 병행 생산하는 복합 해외생산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제품은 우선 인도네시아 전력청(PLN) 및 내수시장을 위주로 공급하게 되는데 현지법인의 사업이 안정화되는 대로 중국·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국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생산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2천년에는 아시아 전 지역과 유럽에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는 향후 중전기 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된다.

## 榮和産業電機製作所, ISO 9002 획득

MOF, PT, CT등 변성기류 전문 생산업체인 榮和産業電機製作所(代表:孔虎泳)는 최근 한국전기전자시험 연구원으로부터 ISO 9002 국제품질

보증 시스템 인증을 획득, 부천공장에서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61년 설립된 이래 30여년간 축적된 기술

과 품질을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내 변성기 업계를 주도해 온 영화산업전기제작소는 이번 ISO 9002 인증 획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높은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하게 됐다.

영화산업은 ISO 9002 인증 획득을 위해 그동안 ISO 관련규정 사내 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원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각 부문별 전담반을 구

성하는 등 전 임직원이 품질향상을 통한 제2의 도약대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ISO 인증 획득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영화산업은 이번 ISO 9002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완벽한 품질시스템을 구축, 품질향상은 물론 앞으로 신규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를 통해 수출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 (株)光明電機, 홍콩법인 설립

수배전반 전문업체인 (株)光明電機(代表: 金榮澤)는 최근 홍콩에 9백만달러 규모의 자본금으로 「光明일렉트릭홍콩」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 현지법인은 현지의 낮은 금리를 이용한 중계 무역을 통해 그동안 광명전기가 독일로부터 원부자재를 국내로 수입해오던 업무를 담당기로 했다. 또 국내 완제품을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등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이 현지법인이 원부

자재를 국내에 들여오는 규모는 1차연도에 2천만 달러이고, 2차, 3차연도에 각각 3천만달러, 4천 5백만달러이다. 또 완제품 수출의 경우 2차연도에 3백만달러, 3차연도에 5백만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전기는 국내 수배전반 생산설비를 점차 빌딩자동화시스템과 UPS(무정전전원장치)등 고부가가치분야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중인 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新亞電氣工業(株), 첨단 누전탐지기 개발

新亞電氣工業(株)(代表: 趙俊英)는 누전탐지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누전탐지기라고 명명된 이 제품은 옥내배선탐지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분, 송신기에서 탐색 대상선로로 펄스를 발신시키면 수신기에 부착된 탐지개소별 신호등에 의해 누전이 되지 않을 시에는 신호등이 점등되고 누전이

수신기에 부착된 탐지개소별 신호등에 의해 누전이 되지 않을 시에는 신호등이 점등되고 누전이 될시에는 점등되지 않아 자세한 누전개소까지 단번에 알 수 있어 누전개소를 찾기위해 벽이나 천정을 다 허물던 종래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같은 의미에서 누전탐지기는 전기공사나 전기 안전보안점검 등에 있어 누전탐지의 정확도를 크게 높이고 누전검색시간과 보수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가히 혁신적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사의 누전탐지기는 이밖에도 ▲사선상태에서 옥내매입 선로를 탐지할 수 있고 ▲매입회로의 배선도통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탐지상태가 부저와 LED로 확실히 표시된다.

新亞電氣工業은 일본과 기술제휴로 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향후 국산화율을 더욱 높여 핵심 IC 만 제외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 成原電氣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成原電氣工業(株)(代表:李暲浩)는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 제 2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74년 삼성전기공업사로 출발하여 79년 성원전기공업(주)로 상호변경과 함께 국내최초로 전기절연물을 KS를 취득하는 등 남다른 품질 경영을 해온 바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동사가 이번에 획득한 인증범위는(마이카테이프류, 마이카 판류, 절연적층판, 전기절연용테이프, 복합전기절연물, 수지코팅전기절연물, 전기절연용

접착테이프류, 절연튜브의 생산 및 판매)로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배양과 함께 제품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신뢰받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로부터 일선 생산라인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품질경영의 노력으로 이번 ISO 인증을 획득하여 외국선진국 제품과 경쟁력을 갖춰 수입 억제와 함께 수출증대에도 큰 이바지를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배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韓寶工業(株), 용융아연도금 기술研 설립

용융아연도금업체인 韓寶工業(株)(代表:金明帝)는 2억원을 투자, 용융아연도금전문기술연구소를 설립, 최근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이 연구소는 연구원 11명, 박사급기술고문 3명 등 모두 14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금

두께시험기와 염수부문시험기등 14종의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보는 올해중 3억 3천만원을 투자, 추가로 7명의 고급인력을 영입하고 조직현미경과 만능재료시험기등 연구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 연구소는 기존 용융아연도금의 부식방지능력을 배가시키고 컬러용융아연도금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동사는 『국내에는 용융아연도금에 관한 전문가가 거의 없어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철의 부식에 탁월한 부식방지효과를 내는 용융아연도금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보공업은 연간 10만t을 용융아연도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용융아연도금업체이다.

## LG電線(株), 배전용케이블 日本에 수출

LG電線(株)(代表: 權焯久)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日本의 전력 공급 회사에 배전용 케이블을 수출한다.

LG전선은 최근 일본 최대의 전력회사인 東京電力(TEPCO)과 1년 동안 100만달러 규모의 중저압 배전용케이블(600V급)을 공급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배전용 케이블은 변전소로부터 빌딩·수용가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인입선으로 주로 1000V나 600V를 사용한다.

동경전력에 대한 이같은 계약은 일본이 스미토

모, 히타치, 후루가와 등 세계적인 전선업체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LG전선이 기술과 가격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LG전선은 앞으로 1년동안 4회에 걸쳐 동경전력에 공급할 예정인데 이번 수출을 계기로 일본 내 다른 전력회사까지 수출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고압용 架空送電線과 다른 기기용전선까지 일본수출을 전개할 방침이다.

## 大韓電線(株), 인도合作社 본격가동

大韓電線(株)(代表: 兪彩濬)가 인도 바달공단에 합작으로 세운 TDT코퍼社가 오는 7월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TDT코퍼社는 가동도 하기전에 이미 현지 전선업체들로부터 생산제품을 쓰겠다는 확약을 받아 놓았는가 하면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등 사업전망까지 밝아 인도 투자성공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은 지금까지 인도에 수출해온 제품이 우수한데다 전선분야에서 기술과 품질력을 갖춘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공급하게 됐다는 점에서 현지 거래선 및 동종업계 경쟁사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개발을 위한 전원확보등을 비롯 인프라분야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는 인도정부 측도 인프라사업 장치기업으로서 TDT코퍼社의

사업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TDT코퍼社가 생산하게 될 제품은 전선용 원자재인 8mm 동선(동로트)이다. 대한전선이 지금까지 인도 케이블업체에 연간 7천만달러어치를 수출

해온 제품이다.

TDT코퍼社는 이 현지공장에서 1차년도 매출 목표를 1억달러로 잡고 생산물량이 나오는 대로 현지 전선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 (株)眞光, 첨단 설비 공장 준공

(株)眞光(代表:金光宇)이 경기도 용인군에 첨단 설비로 가득찬 새공장을 7년간 고투 끝에 마련,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89년 6월 총자금 2억여원에 오직 의지에 찬 종업원 10여명으로 시작한 배전선로용 개폐기전문업체가 이제는 총 매출액만도 2백억원을 바라보고 있고 각종 기술력에서도 단연 앞서가는 등 배전선로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진광은 원래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에 조그마한 공장에 세들어 시작되었다.

'89년 10월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출입업체로 등록하고 '90년 1월에 가스절연부하개폐기를 순수자체기술력으로 개발에 성공하여 한전에 납품을 시작했다. 틀이잡힌 '94년에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품질인증인 ISO 9002를 획득했고, '95년 5월에는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산신기술인정 마크인 KT마크를 획득했고, 10월에는 우수모범기업상을 수상했다.

같은해 12월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우수개발업체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올 2월에는 ISO 9001

인증을 획득했고 3월에는 韓電과 1백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진광의 최근 매출액 규모는 '93년 42억, '94년 1백 7억, '95년은 1백 22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영업전망이 순조롭기 때문에 2백억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진광은 매출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94년 11월에 지금의 용인군 남사면 복리에 1만평의 새공장 부지를 마련했고 공장건설 활동에 박차를 가해 지난 2월초 이전을 완료했고, 제반 인허가 승인사항을 모두 완료했다.

공장 9백평, 연구소 9백 30평, 기술사 4백 10평으로 총 건평 2천 2백 40평이며 총투자액 60억원, 설비 10억원이 소요됐다.

진광은 이 공장의 가동을 계기로 세계를 향한 제2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으며, 세계무역 구조의 변화와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감안, 개폐기 전문업체로서 세계시장을 공략할 각종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株)東亞電機, 「동아 일렉콤」으로 변경

통신용 전원장치 제조업체인 (주)동아전기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동아일렉콤으로 이름을 변경

하고, 새로운 회사심벌을 제정했다.

일렉콤(ELECOMM)이 ELECTRIC·ELECTRONIC과 COMMUNICATION의 합성어로 2000년대의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전원전문 기술자와 석학을 초청, 연구활동과 기술교류를 하게 될 전원연구소

기공식도 거행했다. 이 연구소는 대지 2만평, 건평 5천평 규모로 내년말 완공된다.

동아일렉콤은 종업원 3백여명에 연매출 4백 50 억원으로 그동안 대통령산업포장, 산업평화대상, 조세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三和技研(株), EOCR-3DD 개발 시판

전자식과전류 보호계전기 전문생산업체인 三和技研(株)(代表: 金仁錫)이 최근 기존 제품에 첨단기능을 새롭게 부가한 EOCR-3DD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이 제품은 보호기능 외에 감시기능을 첨가, 모터 보호계전기에 관한 한 최종결정판으로 업계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 제품은 과부하보호, 결상보호, 역상보호, 상불평형보호, 구속보호, 단락보호 등의 기본적인 기능과 삼상전류의 표시가 가능하고 모터의 부하율 체크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장시 즉시 고장원인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 고장의 사전예방 및 고장에 따른 복구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國際電線(株), 喜星電線으로 법인명 변경

國際電線(株)(代表: 裴恩出)가 법인명을 희성전선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국제전선은 지난해말 계열사인 희성산업 등이 LG그룹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법인명을 희성전선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희성전선은 이에 따라 21세기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경영혁신활동인 「JUMP 2000」을 추진,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원자재 및 제품 품질안정, 혁신적인 생산성향상, 물류시스템의 획

기적인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희성전선은 이를 위해 지난해말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품질보증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사적인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희성전선은 특히 올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중국을 포함한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희성

전선은 지난해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전력 및 통신케이블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 三興重電機器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三興重電機器工業(株)(代表:趙亨紀)는 30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중전기기업체의 중견기업으로서, 최근 동사에서 생산중인 변압기, 특고압개폐기 및 전력피뢰기등 12개 전품목에 대하여 영국 ASTA사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동사는 회사 창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끊임없는 개선노력으로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아왔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품질관리체제에 국제적 품질보증 시스템인 ISO 9000 시리즈를 접목시켜 삼흥 고유의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외의 지명도가 높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동사가 시행하고 있는 품질보증시스템의 질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모든 제품 및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 大成電線(株), 比 전력케이블 공사 수주

大成電線(株)(代表:梁始伯)가 코오롱상사와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해 8월 15일부터 세계 유수의 전력케이블 업체와 응찰경쟁 끝에 마닐라 전력청으로부터 송·배전용 전력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3천만 달러에 최종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내 전선 제조업체인 대성전선이 전선공급을 맡게 되고 오는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번에 계약한 프로젝트는 국내업체의 해외 전력케이블 수주사상

최대규모로 필리핀 전력화사업의 일환으로서 마닐라지역에 설치되는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양사는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기점으로 필리핀 전력케이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 올 상반기중 2천만달러 규모의 필리핀 남부 지역 프로젝트 입찰에도 참가하는등 동남아 시장에서 전력 케이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寶星重電機(株), 전선 접속삽입량 검출기 개발

寶星重電機(株)(代表:林都洙)가 국내 송·배

전선로 건설시공 품질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

으로 기대되는 전선접속삽입량 검출기를 개발했다.

寶星重電機가 日本의 아사히電機와 기술제휴를 맺고 개발한 전선 접속삽입량 검출기는 각종 송·배전선로 공사에서 ACSR전선접속시 슬리브에 전선이 적절하게 투입되어 양호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기기로서 송·배전선로의 전선탈락, 단선 등 중대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MR·YOUNG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 기기는 무게가 약 4kg정도로 손가방에 포장되어 있어 현장에서 휴대·운반·사용하는데 대단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 각종 전자장치가 내장되어 1백 50여가지의 작업결과를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억, 보관, 재생할 수 있는 최신기능까지 보유, 앞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大延電子(株),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력용 보호계전기 전문 생산 업체인 大延電子(株)(代表: 鄭冀浩)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로서 대연전자(주)는 21C를 향한 첨단 제품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기업 매출이 매년 급신장하고 있는 동사는 매출액의 10%를 연구 개

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부설 연구소 설립을 위해 첨단 전력용 보호계전기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험 장비의 구입과 함께 고급 전문 연구 인력을 대폭 강화하여 최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첨단 전력용 보호계전기의 국산화로 국가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東明機電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東明機電工業(株)(代表: 姜根熙)는 한국능률협회 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하였다.

동사는 1980년에 설립,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및 판금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95년 8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망선진

기술 중소기업(통상산업부)에 선정되는 등 품질경영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번 ISO 인증 획득을 계기로 동명기전 전 임직원은 끊임없는 품질개선 노력과 품질보증으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極東電線工業(株), LAN用 케이블사업 참여

선박용 전선 메이커인 極東電線工業(株)(代表 : 崔炳哲)가 LAN(근거리통신망)용 케이블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극동전선은 특수전선 전문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데이터를 고속전송하는 UTP(무편조)케이블용 LAN케이블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지난해말 완공한 충북 진천 만송공장에 LAN케이블용 전문설비를 갖추고 월산 3백만m의 UTP케이블을 생산하게 된다.

만송공장은 부지 1만 5천평, 건평 4천평 규모

이다. UTP케이블은 근거리통신망이나 인텔리전트빌딩(IBS)의 통합 배선용케이블로 대용량의 음성과 영상신호를 동시에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이다.

극동전선은 미국 UL(보험업자연연구소)로부터 1백 Mbps(초당전송용량)급 UTP케이블에 대한 품질인증도 획득키로 했다.

극동전선은 또 브레이크호스, 스티어링호스 산업용 고압호스등 고무관련 특수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 기인시스템(株), 154kV급 디지털 보호계전기 개발

자동제어시스템 전문업체인 기인시스템(株)(代表 : 李起元)는 1백 54kV급 이상의 고압송전선로에서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고장시 송전선로를 차단, 설비를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막는 디지털 보호계전기를 선도전기, 일진전기, 태광등과 공동개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개발자금을 지원한 생산기술개발과제로 3년간 8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이 제품은 고속의 보호계전연산처리능력과 함께 다양한 전력고장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각종 보호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전에서는 그간 디지털 보호계전기를 일본의 도시바, 미쓰비시, 미국의 GE, ABB社등 세계유명 중전기메이커에서 수입해 왔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 현재 최종 심의평가 중인 이 제품이 채택되면 연간 2백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품은 디지털 신호 처리전용의 DSP프로세서를 채택, 고속의 실시간 연산이 가능하며 각종 오동작 방지용 로직을 내장해 신뢰성을 높였다.